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권 1호 (2016년 3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김윤정 · 이옥경 · 이해원 · 조영일 · 이원혜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경험 중년을 대상으로 김아라 · 이승연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 백지희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 최영은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 이현정 · 이승연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김은영 · 송현주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정영숙(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심리학과 (내)
전 화 : 051-510-2135

인쇄일 : 2016년 3월 15일
발행일 : 2016년 3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송현주(연세대학교)

편집위원 : 권미경(U.C Davis)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최유정(Yale University)

심사위원 : 권미경(U.C Davis) 김근영(서강대학교) 김민희(한국상대학원대학교) 김수안(서울대학교)
김수정(서울대학교) 김애순(연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현정(이화여자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수현(연세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손정락(전북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신주혜(가톨릭대학교) 오영희(덕성여자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이경남(동아대학교) 이병호(덕성여자대학교) 이수진(경일대학교) 이순목(성균관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장은영(한양대구리병원) 장은진(침례신학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명숙(꽃동네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진경선(연세대학교)
최형성(신라대학교) 한기백(서강대학교) 황순택(충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29, No. 1

March 15, 201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Editor :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Mee-Kyoung Kwon(U.C Davis) Eun-Young Kim(Soonchunhyang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u-Jung Choi(Yale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9 권 제 1 호 / 2016. 3.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김윤정 · 이옥경 · 이해원 · 조영일 · 이원혜 / 1

감사성향과 역경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관계 상실 경험 중년을 대상으로 김아라 · 이승연 / 25

어머니의 내·외적 양육 동기에 따른 군집 유형과 영역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 백지희 / 47

의심의 기술 발달: 선택적 신뢰와 증거성 추론

..... 최영은 / 63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 이현정 · 이승연 / 83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김은영 · 송현주 / 101

한국발달심리학회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이 현 정

인간발달복지연구소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소가 성인애착을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시 소재의 4년제 여자대학교 2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8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측정도구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성인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EAT-26;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이상섭식행동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 차원 중 친밀차원은 이상섭식행동과 부적상관, 불안차원, 의존차원은 이상섭식행동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유형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고,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가진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 개입방법을 제안하였고, 국내연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인애착과 이상섭식행동을 함께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인애착, 다차원적 완벽주의, 이상섭식행동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slee1@ewha.ac.kr

최근 각종 대중매체에서 연일 다이어트 요법이나 날씬한 몸매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콘텐츠들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풍조는 결과적으로 과체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정상체중인 사람들도 체중을 감소시켜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킨다(김정내, 2007). 특히,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보고서(2003)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섭식관련 문제로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이 18.8%로 증가하였고, 섭식장애 환자의 2명 중 1명은 10~30대의 젊은 층이며, 섭식장애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이 남성 약 18.9%~23%, 여성 약 77%~81.1%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섭식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상섭식행동이란 공식적인 진단 기준을 통해 섭식장애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섭식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의미한다(오경자, 이상선, 2004) 이처럼 이상섭식행동은 섭식장애로 가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섭식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Mintz, O' Hallaran, Mulholland & Schneider, 1997)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비만과 같은 생리적인 위험요인(Cattarain & Thompson, 1994)과 부정적 정서, 완벽주의,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위험요인들이 포함되는 개인적 차원, 애착, 가족과의 상호작용 패턴 등의 가족적 차원과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차원(Stice, Mazotti, Krebs & Martin, 1998)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 요인, 특히 완벽주의는 다른 정신병리와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관련되었을 때 자신을 평가하는 역기능적인 도식을 가지며(Shafran, Cooperdh & Fairbum,

2002), 날씬한 몸과 관련한 불가능한 기준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핵심특징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이희주, 2001; Hewitt & Flett, 1993; Hewitt, Flett & Ediger, 1994). 더불어 완벽주의가 이상섭식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Bauer & Anderson, 1989; Bruch, 1973; Garner, 1982; Tyaka, Waldron, Graber, & Brooks-Gunn, 2002; Fairburn, Cooper, Doll, & Welch, 1999). Hewitt과 Flett(1993)은 완벽주의와 섭식장애와의 관련에 대한 연구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체중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며, 자신의 목표에 조금만 못 미쳐도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여겨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즉,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이 실패를 지각하는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섭식장애환자들은 도달할 수 없는 날씬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완벽주의가 섭식장애의 발달과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내, 한정희, 2006)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완벽주의가 섭식장애 발병에 선행하고, 장애의 심한 정도를 특징짓고(Halmi et al., 2000; Lilenfeld et al., 2000), 회복 후에도 지속된다고 말한다(Bastiani, Rao, Weltzin & Kye, 1995; Sutandar-Pinnock, Blake, Carter, Olmsted, Kaplan, 2003). 또한 Thomsen, Mccoy와 Williams(2001)는 섭식장애환자들의 내재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한 결과 환자들의 경험기술에서 완벽주의적 성향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완벽주의는 섭식장애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Hewitt, Flett, & Ediger, 1995; Joiner, Heatherton, & Keel, 1997)

그러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병리적인 발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를 내리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실패로 인지하는 인지왜곡이 일어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Hewitt & Flett, 1995;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가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오경자, 이상선, 2005). 이를 토대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이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Srinivasaga와 Kaye(1995)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상섭식행동을 촉발하는 취약적인 성격특성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완벽주의가 형성되는 그 발달과정에 대한 이론들은 대부분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의 가족 환경 즉, 부모의 특성이나 태도,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가족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고 있다.(유미숙, 2004). 부모-자녀 관계 양상은 의미있는 타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되는 애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성인애착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며, 대인관계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에 따라 완벽주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불안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 및 사회적으로부터 부과된 기준과 기대에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성향인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독립성이 강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의존차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

하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다양한 변인 중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최근 섭식장애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부각되어 중요시되고 있다(Baumrind, 1991). 특히, Leonard, Steiger와 Kao(2003)는 아동기에 성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낮은 자존감이나 적응적 기제에 문제를 가져서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밝혀내면서 또 다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 섭식장애를 매개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즉, 아동기 외상은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애착을 방해하는 사건인 점에서 애착의 실패는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애착 연구에서도 애착은 많은 정신 병리의 발달과 유지, 재발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왔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은 성인기에 들어와서 기분장애, 물질사용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 병리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등(Grant et al., 2008) 애착의 실패를 정신병리의 핵심요인이라 파악하고 있다. 또한 Rice와 Lopez(2004)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내담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고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요소에 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유상미, 이승연, 200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더라도 애착유형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인지/정서적 자원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

인애착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적응 및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이나 지지원천으로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안정 애착의 특성들은 자존감 발달과 심리적 능력 발달에 중요하고(Kenny & Hart, 1992) 더 나아가 개인의 효과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Hewitt, Flynn, Mikail과 Flett(2001)도 완벽주의 성향이 어린 시절 부모 또는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관계기대 또는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내담자들의 관계패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Kiang과 Harter(2006)는 섭식장애자들이 부모와 로맨틱 파트너에 대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Sandberg와 Suldo(200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불안정애착은 폭식행동과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Brennan과 Shaver(1995)는 242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에 따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일수록 이상섭식행동이 적게 보고됨을 밝혔다. Giorgio(2006)는 불안정애착은 신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섭식장애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성 변인임을 밝혔다. Giorgio와 Leah(2009)는 불안정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나누어 섭식장애증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불안애착은 정서반응성을 매개로 섭식장애증상에 영향을 미쳤고, 회피애착은 정서조절전략을 매개하지 않고 섭식장애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Janet(2008)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 불안애착만이 성격특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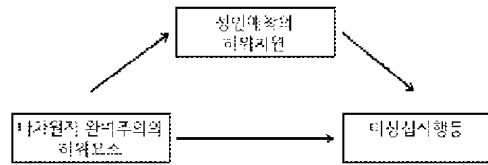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가설모형

신경증이 완전 매개하여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오숙현(1994)과 김은정(2004)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이상섭식행동과 부모애착간에 부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애착과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성인애착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가설 1.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 이상섭식행동, 성인애착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성인애착에 의해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4년제 여자대학교인 D여자대학교와 E여자대학교의 대학생 총 60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610명

중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미 응답한 30명의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58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는 18세-37세였고, 평균연령은 20.8세(SD=2.15)였다. 이 집단의 평균 신장은 162.3cm(SD=4.77cm), 평균 체중은 52.42kg(SD=6.89kg)이었다.

연구대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 집단의 28.5%는 신체 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18.5미만에 해당하는 저체중 집단이었는데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로 잠재적인 신경성 거식증의 가능성을 보인 대상 중 23.8%(20명)는 저체중 집단에 속했다. 대상 집단의 67.9%는 신체 질량 지수 18.5-24.9에 해당하는 정상체중 집단이었으며, 3.6%가 신체 질량 지수 25이상에 해당하는 과체중 집단이었다. 즉, 대부분이 정상체중이거나 저체중 집단이었다. 이들 중 70.5%는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현재 신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은 전체의 49.1%이었으며 14.1%만이 만족한다고 응

답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이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완벽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제작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하고 김연수(1998)가 재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이미화(2001)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ewitt와 Flett(1991)이 완벽주의 성향의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의 양쪽을 모두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로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완벽함을 중요시 해 그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자기에겐 완벽하도록 압력을 넣는다고 믿거나 지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또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미화(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89, 타인지향적 완벽주의.7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71 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580)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신체질량 지수	저체중집단	165	28.5
	정상체중집단	394	67.9
	과체중집단	21	3.6
다이어트 경험	유	409	70.5
	무	171	29.5
신체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53	9.1
	만족하지 않음	232	40.0
	보통	213	36.7
	만족함	78	13.4
	매우 만족함	4	0.7

α 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90,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7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79 이었다.

성인애착 척도

대학생의 애착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성인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를 이재원(2006)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밀차원은 자신이 상대방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관련이 있다. 불안차원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반대된다. 의존차원은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 주는 것에 대한 불편감,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적 애착유형과 반대된다. 세 하위척도는 각각 6개의 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된다.

노유진(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의존차원 .73, 불안차원 .67, 친밀차원 .63 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의존차원 .70, 불안차원 .73, 친밀차원 .66 이었다.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한 섭식태도 척도-26(EAT; Eating Attitude Test-26)을 이민규 등(1998)이 표준화한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KEAT-26;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을 사용하였다. KEAT-26 척도는 거식, 폭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 섭식통제의 3요인

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한 이상섭식태도를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총합으로 이상섭식태도를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태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3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 4년제 여자대학교 2곳에서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가 이루어졌다. 61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미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총 5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적사항,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성인애착 척도, 한국판 섭식 태도-26로 구성하였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하게 되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 척도의 순서를 A, B, C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5-2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보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성인애착, 이상섭식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 성인애착차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먼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는 세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한 Sobel Test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Sobel의 방정식은 $z\text{-value} = \frac{a \times b}{\sqrt{b^2 \times SEa^2 + a^2 \times SEb^2}}$ 인데, 여기서 a는 경로a(독립변인→매개변인)의 비표준화계수, b는 경로b(매개변인→종속변인)의 비표준화계수, SEa는 경로 a의 표준오차, SEb는 경로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된 z-value가 ±1.96보다 크다면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 통계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 성인애착, 이상섭식행동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이상섭식행동과 성인애착의 하위차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친밀차원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의존차원과 불안차원과 이상섭식행동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을 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친밀차원과 의존차원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성인애착의 불안차원, 의존차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고, 친밀차원과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에서 부적상관을 보이고

표 2.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인애착, 이상섭식행동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580)

	1	2	3	4	5	6	7	M	SD
완벽주의	1. 자기지향	-						71.37	12.84
	2. 타인지향	.51***	-					59.31	10.07
	3. 사회부과	.41***	.38***	-				58.55	9.92
성인애착	4. 친밀차원	.11**	.05	-.19***	-			16.17	3.96
	5. 불안차원	.05	.08*	.34***	-.25***	-		13.16	4.12
	6. 의존차원	.10**	.03	.33***	-.43***	.43***	-	16.52	4.03
이상섭식행동	.16***	.12**	.23***	-.11**	.22***	.17***	-	10.73	8.91

*** $p < .001$, ** $p < .01$, * $p < .05$

표 3.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 하위차원의 영향 (N=580)

예측변인		β	R^2	F
완벽주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10	.09***	9.04***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0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1*		
성인애착	친밀차원	-.04		
	불안차원	.15**		
	의존차원	.05		

*** $p < .001$, ** $p < .01$, * $p < .05$

있다. 그러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성인애착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이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중다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공차한계는 0.1 이상, VIF는 10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의 문제를 판단한 결과, 공차한계는 .66~.77, VIF는 1.29~1.5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유형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beta = .11, p < .05$)만이 이상섭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애착의 하위차원 중 불안차원($\beta = .15, p < .01$)만이 이상섭식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 하위차원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불안차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친밀차원, 의존차원 간 유의미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친밀차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불안차원,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친밀차원과 의존차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매개효과

여자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매개변인인 불안차원에 미치

표 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부분매개효과 (N=580)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사회적 부과	불안차원	.32	7.95***	.10	63.23***
2단계					
사회적 부과	이상섭식행동	.15	3.63***	.02	13.21***
3단계					
사회적 부과	이상섭식행동	.10	2.34*	.05	12.92***
불안차원		.16	3.51***		

*** $p < .001$, ** $p < .01$, * $p < .05$

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2$,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종속변인인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15$, $p < .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불안차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beta = .16$,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 .15$, $p < .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10$, $p < .05$). 따라서 성인애착의 불안차원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

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불안차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 = 3.23$, $p < .05$)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매개효과

여자 대학생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매개효과

표 5.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부분매개효과 (N=580)

예측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1단계					
자기 지향적	의존차원	.10	2.37*	.01	5.61*
2단계					
자기 지향적	이상섭식행동	.16	3.81***	.02	14.51***
3단계					
자기 지향적	이상섭식행동	.14	3.46**	.05	14.98***
의존차원		.16	3.89***		

*** $p < .001$, ** $p < .01$, * $p < .05$

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매개변인인 의존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0, p < .01$),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종속변인인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16, p < .001$). 그리고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의존차원이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beta = .16, p < .001$),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beta = .16, p < .001$)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다($\beta = .14, p < .01$). 따라서 성인애착의 의존차원은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의존차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 = 2.03, p < .05$)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이들 변인들 간에 성인애착하위차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여자대학교 2곳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측정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

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 행동 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상섭식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완벽주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오경자, 이상선, 2005; Tyrka, Waldron, Graber, & Brooks-Gunn, 2002) 본 연구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세 하위 요인인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 행동의 상관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인애착과 이상섭식 행동의 상관을 살펴보면, 이상섭식 행동은 친밀차원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의존차원과 불안차원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친밀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상섭식 행동이 적게 나타나며, 의존차원과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이상섭식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친밀차원이 높은 것은 안정애착을 의미하고 의존차원과 불안차원이 높은 것은 불안정 애착임을 의미하는데 불안정애착일 경우 이상섭식 행동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는 안정애착일수록 이상섭식 행동이 적고(Brennan & Shaver, 1995), 불안정 애착이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김은정, 2004; 오숙현, 1994; Giorgio, 2006)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차원적인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만이 이상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 행동을 많이 보였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예민하여 많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이상섭식 행동

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신경성 폭식증을 가장 잘 설명한 연구들이 있는데 (김하영, 2009; 이희주, 2001)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이선형(2006)은 체중에 대한 부모압력과 대중매체 압력이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고, 김은정(2004)의 연구에서도 외모관련 사회문화 태도와 이상섭식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외모와 관련하여 사회문화 태도를 내면화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부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유사한 특성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성인애착의 하위차원 중 불안차원만이 이상섭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불안차원이 높은 사람은 불안/양가 애착 집단의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타인에게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혹은 외부의 아름다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음식을 통제함으로써 몸무게나 외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이상섭식행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이상섭식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지향, 2006; Armstrong & Roth(1989), Salzman, 1997; Sandberg & Suldo, 2000; Giorgio & Leah et al.,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 하위차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차원의 부분매개효과

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고,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에서 의존차원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완벽한 자신을 기대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외부의 승인을 중시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상을 형성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불안차원을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이 유발됨을 시사한다. 즉, 외부의 기준과 가치를 중시여기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때 더욱 이상섭식행동 양상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사회·문화적 외모가치기준의 내면화를 매개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임마누엘, 2008).

또한 의존차원은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 주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의존차원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낮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상적이고 완전한 자기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의존차원의 성향을 매개하여 이상섭식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소와 이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였고,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의 직,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섭식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기술 및 설명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행동문제를 통제 및 예측할 수 있

는 다양한 중재들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에게는 개인 스스로가 갖는 기준과 가치에만 초점화 할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에게는 지나치게 사회에 초점화되어 있는 것을 개인 내부로 초점화시켜 자기 자신 스스로 타당한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종합적으로 볼 때,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있더라도 대인관계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때 이상섭식행동을 줄이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상섭식행동의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인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정상군에게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중재 개입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데 애착이 중요한 변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나(Baumrind, 1991; Sandberg & Suldo, 2000; Brennan & Shaver, 1995) 국내연구에서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

위차원과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설명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다른 강력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거식행동과 폭식행동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이상 섭식행동임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Diaz-Marsa, Carrasco, & Saiz, 2000; Fassino, Daga, Piero, Leombruni, & Rovera, 2001; Heeringen, & Audenart, 2004; Rossier, Bolognini, Plancherel, & Halfon,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상섭식행동에 대한 이후의 연구에서 거식행동과 폭식행동의 경향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섭식행동은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도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외모가 중요하게 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남성들도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나므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HIRA-Quickstat, 2013-02
- 김정내, 임성문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자의식의

-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5), 315-344
- 김정내, 하정희 (2006).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남녀 대학생의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107-131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민선, 서영석 (2010).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 분류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13-434
- 김은아 (1996). 부모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 및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정 (2004).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형인식도 및 체중조절 실태와 이상섭식행동 관련 요인. 석사학위 청구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정연 (2003). 성인애착과 사회적 지지요청, 지지받기 및 문제의 심각도 지각.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 김하영, 박기환 (2009). 경험완벽주의, 충동성, 섭식절제와 폭식행동의 연관성. 한국심리학회: 건강, 14(1).
- 김혜원, 이지연 (2015). 여자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정서적 섭식행동: 정서조절과 인지 왜곡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3), 29-42.
- 김희영 (1998). 다이어트를 하는 여고생 집단에서 완벽주의적 성향과 다이어트 실패경험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노유진 (2006). 성인 애착유형이 미혼남녀의 사랑 유형과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 논문. 중앙대학교.
- 노혜련 (1995). 한국 고등학생 집단의 폭식장애 및 대식증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 74-97.
- 박은희, 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57-79
- 손은정 (2011). 완벽주의, 자기비난, 자기의식, 신체불만족 및 신경성 폭식증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0(1), 165-183
- 손은정 (2013) 여대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불일치, 지각된 사회적지지,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309-330
- 오미영 (2006). 섭식태도와 완벽주의 성향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유미숙, 하은혜 (2004). 완벽주의 성향의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기능적 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2), 425-444.
- 이미화 (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양대학교.
- 이상선, 오경자 (2005).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거식 행동과 폭식 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91-813
- 이선형 (2006). 여자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체중에 대한 외부압력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11).
- 이우경, 최은실 (2013).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413-430
- 이재원 (2006).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대인불안의 관계: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 로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혜, 조민희, 이채연, 이수정, 이상민 (2014).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21-41
- 이희주 (2001). 완벽주의 성향과 신경성 폭식증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원대학교.
- 장광자 (1997). 섭식장애에 대한 고찰. 경희 간호 논문집, 1. 61-70.
- 오경자, 정현강 (2008) 이상 섭식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완벽주의 성향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 최진영 (2000). 여대생의 섭식절제와 신체불만족 및 완벽주의와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전남대학교.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 한오수, 유희정, 김창윤, 이 철, 민병근, 박인호 (1990). 한국인의 식이장애의 역학 및 성격특성. 정신의학, 15, 270-287.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 Aina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study on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uer, B. G., & Anderson, W. P. (1989). Bulimic beliefs; Food for though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416-419
-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M. Hetherngton, Family transition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Shaver, P.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Bruch, H. (1973). Eating Disorders; Obesity, anorexia nervosa, and the person within. New York; Basic Books.
- Cattarain, J. A., & Thompson, J. K., (1994). A three-year longitudinal study of body image, eating disturbance, and general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dolescent females, *Eating Disorders*, 2, 114-125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Facial Psychology*, 58, 644-663.
- Diaz-Marsa, M, Carrasco, J.L., & Saiz, J. (2000). A study of temperament and personality in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Journal or Personality Disorders*, 14(4), 352-359.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unn. (2002). Alcohol and drug-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in college students with bulimia nervosa and binge eating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 171-178.
- Dunn, (2003). Assessing readiness to change binge eating and compensatory behaviors. *Eating*

- Behaviors*, 4, 305-314.
- Fairburn, C. G., Cooper, Z., Doll, H. A., & Welch, S. L. (1999). Risk factors for anorexia nervosa: Three intergrated case control comparis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468-47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79). The Eating Attitudes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 273-279
- Garner, D. M., Olmsted, M. P., Bohr, Y., & Garfinkel, P. E. (1982). The Eating Attitudes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al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12, 871-878
- Ha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awkins. R. C., & Clement, P. F. (1981).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binge eating tendencies. *Addictive Behaviors*, 5. 219-22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witt, P. L., & Flett, G. L. (1989).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Canadian Psychology*, 30, 339.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Perfectionism in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1b).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 (1995). Perfectionism traits and perfectionism self-presentation in eating disorder attitudes, characteristics, and symps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317-326.
- Joiner, T. E., Jr. Heatherton, T. F., Rudd, M. D., & Schmidt, N. B. (1997b). Perfectionism, perceived weight status, and bulmic symptoms: Two studies testing a diathesis-stress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145-153.
- Josefina C, Aracel G, Pilar Francisca L, Begaona S., & Josep T. (2004). Perfectionism dimens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norexia nervosa.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5, 392-398.
- Kenny, M. E., & Hart. K. (1992).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ating disorders in an inpatient and a colleg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521-526.
- Kiang, L., & Harter, S. (2006). Sociocultural values of appearance and attachment processes: An integrated model of eating disorder

- symptomatology. *Eating Behaviors*, 7, 2.
- Mintz, L. B., & Betz, N. E. (1988).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ating disordered behaviors among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5, 463-471.
- Mintz, L. B., O'Halloran, M. S., Mulholland, A. M., & Schneider, P. A. (1997). Questionnaire for eating disorder diagnose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perationalizing DSM-IV criteria into a self-report forma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482-500.
- Mitzman, S. F., Slade, P., Dewey, M. E.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designed to measure neurotic perfectionism in the eating disordere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 516-520.
- Polivy, J., & Herman, C. P. (1985). Dieting and bingeing: A causal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0(2), 193-201.
- Rice, K. G., & Mirzade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7, 238-250.
- Rosch, D. S., Crowther, J. H., & Graham, J. R. (1991). MMPI-derived personality subtypes in an undergraduate bulimic population.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 5, 15-22.
- Rossier, V., Bolognini, M., Plancherel, B., & Halfon, O. (2000). Sensation seeking: A Personality trait characteristic of adolescent girls and young women with eating disorder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8, 245-252.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773-791.
- Stice, E., Mazotti, L., Krebs, M., & Martin, S. (1998). Predictors of adolescent dieting behaviors: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2, 195-205.
- Striegel-Moore, R. H., Silberstein, L. R., & Rodin, J. (1993). The social self in bulimia nervosa: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perceived fraudul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97-303.
- Strober, M. (1980). Personality and symptomatological features in young, nonchronic anorexia nervosa patien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4, 353-359.
- Strober, M. (1984).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bulimia in anorexia nervosa: Empirical findings and theoretical specul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 3-16.
- Strober, M. (1991). Disorders of the self in anorexia nervosa; An organismic developmental paradigm. *Psychodynamic Treatment of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354-373
- Tyrka, A. R., Waldron, I., Graber, J. A., & Brooks-Gunn, J. (2002). Prospective predictors of the onset of anorexic and bulimic syndr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2, 282-290.
- Williamson, D. A., Davis, C. J., Duchmann, E. G., McKenzie, S. J., & Watkins, P. C. (1990). Assessment of eating disorders: Obesity,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1차원고접수 : 2016.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6. 02. 20.

최종게재결정 : 2016. 02. 26.

The Medi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Hyun-Jung Lee

Seung-yeon Lee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al &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600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other-oriented perfectionism,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dependence dimensions, and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anxiety dimensions, but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closeness; (2)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nxiety dimensions were significantly predictive of abnormal eating behaviors; and (3) with regard to mediating effects, anxiety dimension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Further, dependence dimension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abnormal eating behavior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abnormal eating behavior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